

**2021년 국토교육 동아리
탐구보고서
[오지go지리go렛잇go]**

2021년 11월

성주고등학교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경북지역의 도시 구조와 도시 체계, 지역화 전략 등을 비교·파악하는 것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한국지리 단원 중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IV.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V. 생산과 소비의 공간, VI.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단원에서 학습한 도시, 산업, 인구 관련 학습 내용을 대구·경북지역을 사례로 적용해봄으로써 교과 지식을 확장시키고, 대구·경북의 지역 특색과 지역화 전략을 비교해봄으로써 우리 지역과 국토에 대해 심도있게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설계

본 연구 지역인 대구·경북은 대도시인 대구광역시와 구미시·포항시와 같이 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 안동시·경주시 등 전통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 농업과 어업 등 1차 산업을 주로하여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어촌 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들이 산재해있다.

이들 도시 중 특징이 뚜렷하게 대비될 수 있는 사례지역으로 아래의 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도시	특징
성주군	1차 산업. 대도시 근교의 위치적 이점과 과수의 시설재배 활발
구미시	2차 산업 중에서도 전자산업이 발달.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음.
안동시	전통문화 도시. 경북 북부 지역의 중심 도시.
예천군	1차 산업. 경북 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영양군	1차 산업. 경북에서 인구 수 가장 적음.
영덕군	해안 지역의 1차 산업 도시.
포항시	2차 산업 중에서도 제철공업이 발달. 경북 최대 도시
대구광역시	중심 대도시. 섬유 산업 발달. 인구 감소

표 1. 연구 지역 특징



그림 1. 연구 지역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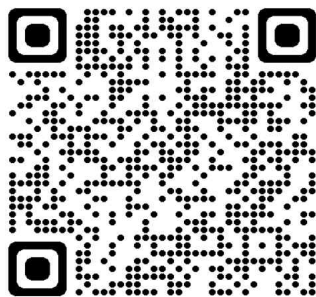


그림 2. 답사 영상

각종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인구 구조, 산업 구조, 도시 체계 분석을 통해 도시 체계를 파악하고, 각 지역을 나타내는 도시 브랜드, 캐릭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지역화 전략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지리를 수강하고 있는 본교 2학년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답사를 통해 각 지역의 도시브랜드와 캐릭터가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각 지역의 거점마다 네비게이션을 통해 거리별 산부인과 개수, 전기차 충전소 개수를 파악해봄으로써 생활편의시설의 밀집도를 비교 파악하였다.

II. 지역 개관

경상북도는 총 면적 19,034km²로 행정구역상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구는 2020년 기준 2,639,422명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인천광역시에 이어 6번째로 많다.

지역명	총인구수	유소년 (0-14세)	청장년 (15-64세)	노년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	성비
성주군	42,781	2,903	25,526	14,352	33.5	107.6
구미시	413,366	61,909	309,203	42,254	10.2	105.1
안동시	157,317	16,617	100,505	40,195	25.6	102.0
예천군	55,809	6,940	31,707	17,162	30.8	96.5
영양군	16,330	1,135	8,885	6,310	38.6	99.3
영덕군	35,497	2,460	19,171	13,866	39.1	90.3
포항시	503,179	61,504	349,573	92,552	18.4	102.6
대구광역시	2,390,721	276,424	1,699,870	414,427	17.3	97.5

표 2. 연구 지역 인구 구조(2021.10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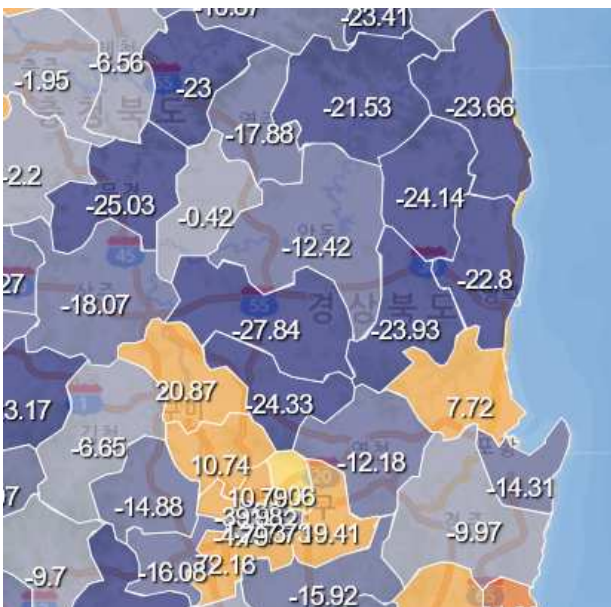


그림 3. 2000년 대비 2020년 인구증감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포항시이며 구미시, 안동시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미시와 안동시 간의 격차는 약 2.6배 가량으로 2차 산업의 발달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영양군으로 2000년 대비 인구증감률은 -24.14로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사례 지역 중 2000년 대비 2020년에 인구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구미시가 유일했으며, 전체 인구 중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IT기기 생산과 관련한 산업의 성장이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증감률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

은 예천군이다. 읍면동 단위의 인구증감률에서 예천군 호명면은 479.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경상북도 도청 이전으로 인한 신도시의 건설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의 비율도 12.4%로 구미시에 이어 사례지역 중 두 번째로 높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20%인 초고령 지역은 영덕군, 영양군, 성주군, 예천군, 안동시이며, 안동시를 제외한 네 개 지역은 30%를 초과하고 있다.

지역명	노인인구비율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인당 GRDP
성주군	33.5	46.0	24.5	29.6	40,955,095
구미시	10.2	4.9	45.2	49.9	80,333,466
안동시	25.6	25.6	13.6	60.9	30,201,048
예천군	30.8	46.4	13.5	40.1	22,416,094
영양군	38.6	41.1	7.5	51.4	23,150,956
영덕군	39.1	35.7	12.1	52.7	20,434,397
포항시	18.4	8.8	27.0	64.3	36,425,424
대구광역시	17.3	1.3	24.9	73.8	23,038,099

표 3. 노인인구 비율과 산업별 취업자 비율(2020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은 지역의 산업구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1차산업과는 정비례, 2차 산업과는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인당 GRDP는 지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1인당 GRDP가 높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뜻이고, 낮을수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인당 GRDP는 구미시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차 산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성주군으로 특이할만한데, 성주군과 예천군의 1차 산업 비중은 비슷하지만 성주군은 대구광역시의 근교 농촌지역으로 특산물인 참외생산이 전국 생산량의 7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3개의 산업 단지를 이루고 있어 2차 산업의 비중도 높은 편이라 1인당 GRDP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Ⅲ. 각 지역별 특징

1. 성주군

성주군은 인구 42,781명(2021. 10. 기준)의 경상북도 서남부에 위치한 농촌 지역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참외라는 지역 브랜드 상품을 재배한다. 2019년 처음으로 노인 인구비율이 3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출생률 감소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구문제를 겪고 있다.



표 4. 성주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성주군청 홈페이지)



그림 6. 성주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사용 사례(직접 촬영)

성주군의 도시 브랜드 ‘성주는 즐겁다’는 성주군의 별고을을 슬로건의 모티브로 활용하여 즐거움이 별처럼 빛남을 의미하며 별처럼 다양한 성주의 즐길 거리를 상징한다. 성주군의 캐릭터 참별이는 별고을 성주에서 생산되는 성주참외를 캐릭터화하였으며 건강한 성주참외의 아름다운 노란빛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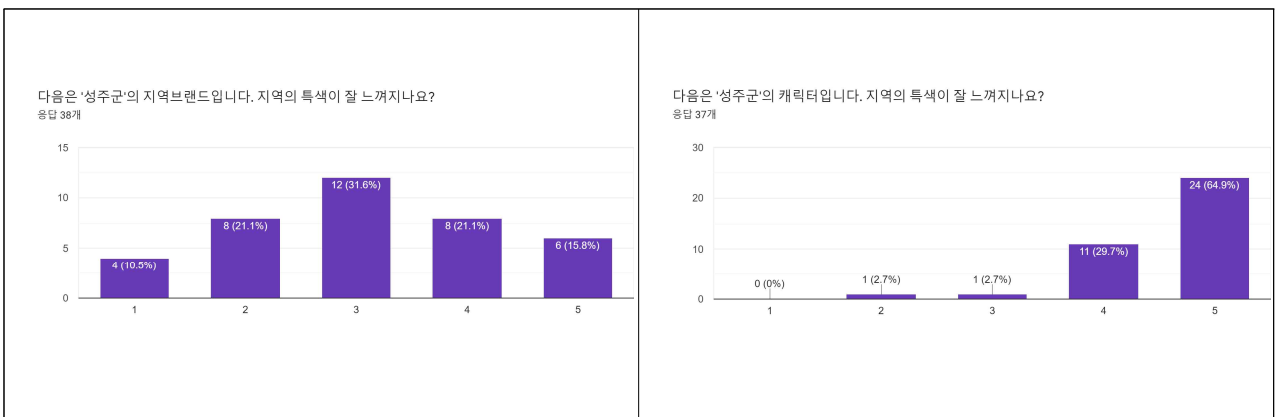


표 5. 성주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성주군’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참외’, ‘성박숲’, ‘비닐하우스’가 많았으며 성주군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1점이었고, 성주군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4.6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성주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



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도시 브랜드는 성주군을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 캐릭터는 성주군의 특성을 잘 살렸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성주군의 도시 브랜드는 성주군이 갖고 있는 참외농업, 별고을이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주군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있도록 별을 강조하거나 참외를 이용한 도시 브랜드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2. 구미시

구미시는 1978년 선산군 구미읍과 칠곡군 인동면이 합쳐져 형성되었으며, 시 승격 당시 인구는 89,612명이었으나 2021년 10월 기준 413,366명이다. 청장년층의 비율이 74.8%로 높으며, 노년층의 비율은 10.2%로 연구 지역 중 가장 낮다. 구미시는 전자 산업을 필두로 한 국가 산업단지로 인해 성장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산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성장해왔다. 전국에서 보기 드문 젊은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구미시청 홈페이지)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 ‘YES GUMI’ 는 Your 당신(시민)으로부터 시작하는 행복한 변화의 시



그림 12.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사용 사례(직접 촬영)

작, Exciting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 신나는, Smart 사람 중심의 스마트 혁신으로 일자리 넘치는 풍요로운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미시의 캐릭터 TOMI는 거북이의 총명함과 전자의 스피드를 통해 구미시민의 진취적인 시민의식을 대변하였으며 넥타이는 예절과 인간성의 상징으로서 첨단 기술과 인간이 조화로운 도시임을 상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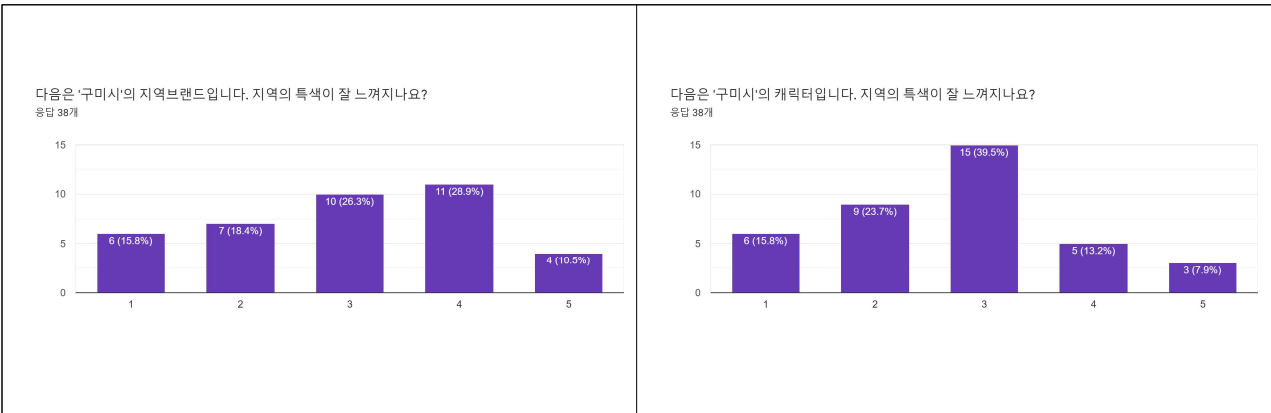


표 7.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구미시’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전자’, ‘공장’,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많았으며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점이었고, 구미시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2.7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모두 구미시의 특색을 살지 못했고 의도 파악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구미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는 구미시가 갖고 있는 전자산업, 공업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구미시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있도록 전자, 공업에 맞는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3. 안동시

안동시는 1995년 안동시와 안동군을 통합하여 형성되었으며, 14개의 읍·면과 10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수는 2021년 10월 기준 157,317명이다. 지역 특산품으로는 안동 소주, 안동 간고등어 등이 있으며, 지역의 현대 축제로는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 안동 민속축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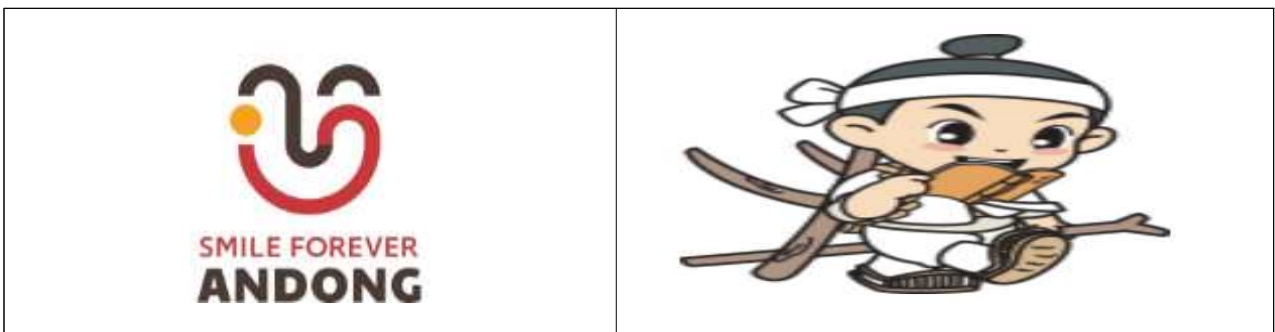


표 8. 안동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안동시청 홈페이지)

안동시의 도시 브랜드 ‘SMILE FOREVER ANDONG’은 안동 고유 문화유산인 하회탈의 미소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웃는 얼굴과 친근하고 긍정적 분위기를 표현했다. 안동시의 캐릭터 ‘양반’은 가난을 이겨내고 안동의 사표로 성공한 인물로 교육과 학문의 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대표하며 안동 문화의 핵심인 유교정신을 배경으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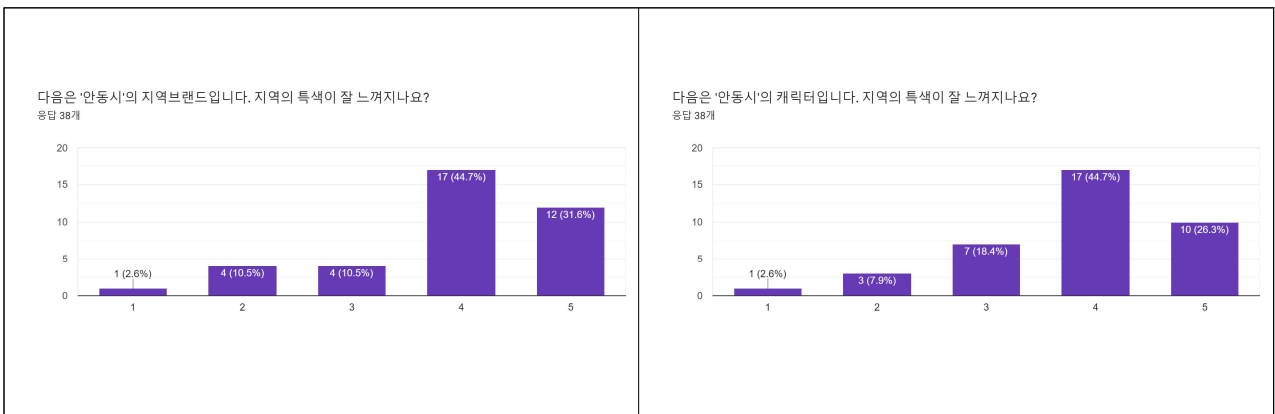


표 9. 안동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안동시’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짬닭’, ‘하회마을’이 많았으며 안동시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이었고, 안동시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3.8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안동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도시 브랜드는 안동하면 떠오르는 하회탈을 이용해 개성이 있었고 캐릭터는 선비의 지역인 안동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안동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는 안동시가 갖고 있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예천군

예천군은 영주시, 안동시 등 여러 개의 시와 접해있는 군 지역이다. 인구는 1975년 141,100명에서 2015년 44,674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경북도청 이전과 함께 조성된 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2021년 10월 기준 55,80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도시의 영향으로 예천군 내 지역 간, 세대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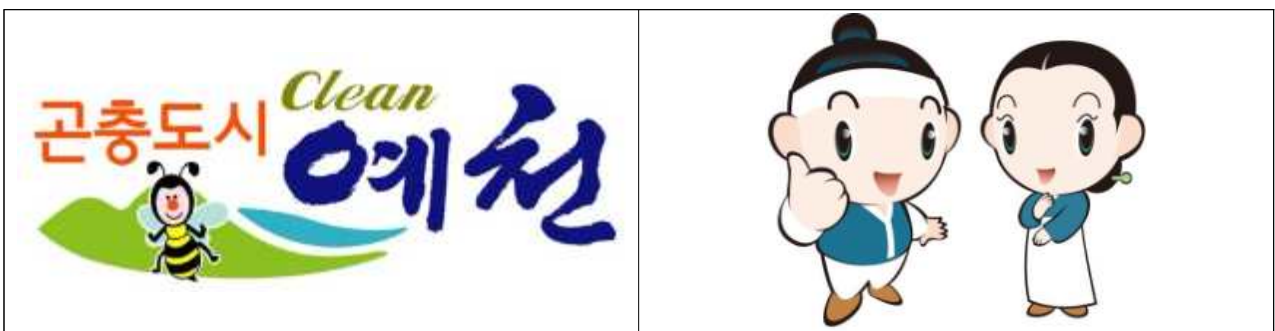


표 10. 예천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예천군청 홈페이지)

예천군의 도시 브랜드 ‘곤충도시 clean 예천’은 예천의 싱그러운 자연을 상징하는 산과 물 속에 ‘호박벌’을 삽입하여 청정자연도시, 곤충도시로서의 예천을 상징한다. 예천군의 캐릭터 효동이와 효심이는 주명심보감에 올라있는 지역출신 도효자를 형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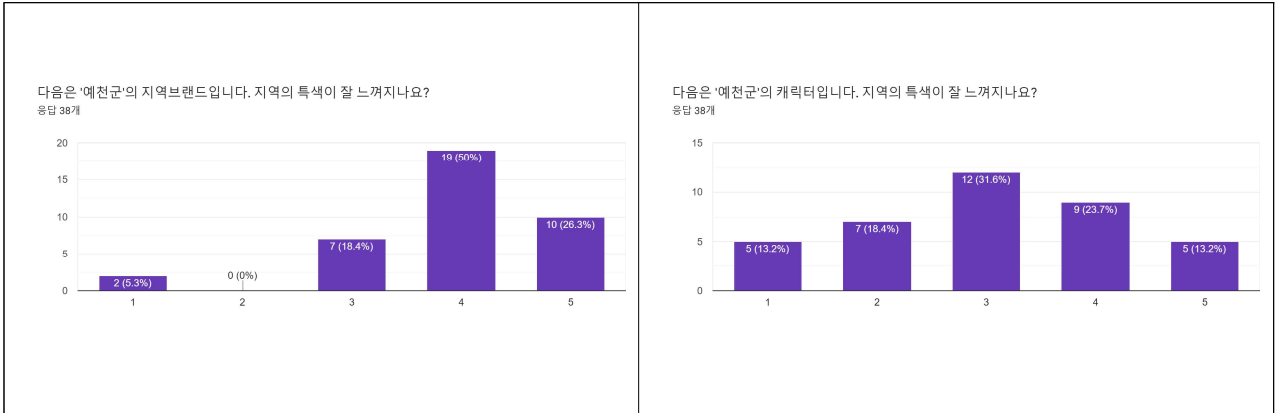


표 11. 예천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예천군’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사과’, ‘곶창’이 많았으며 예천군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이었고, 예천군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3.1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예천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도시 브랜드는 지역에 대해 잘 몰라도 지역의 특성을 알 정도로 잘 표현했지만 캐릭터는 무엇을 묘사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예천군의 캐릭터는 예천군이 갖고 있는 클린도시, 곶창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천군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곶창, 사과 등으로 캐릭터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5. 영양군

영양군은 경상북도 동북부 태백산맥의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개의 읍과 5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수는 2021년 10월 기준 16,330명이다. 지역 특산품으로는 영양 고추, 영양 더덕 등이 있으며 지역 축제로는 영양고추문화축제, 영양반딧불이생태체험축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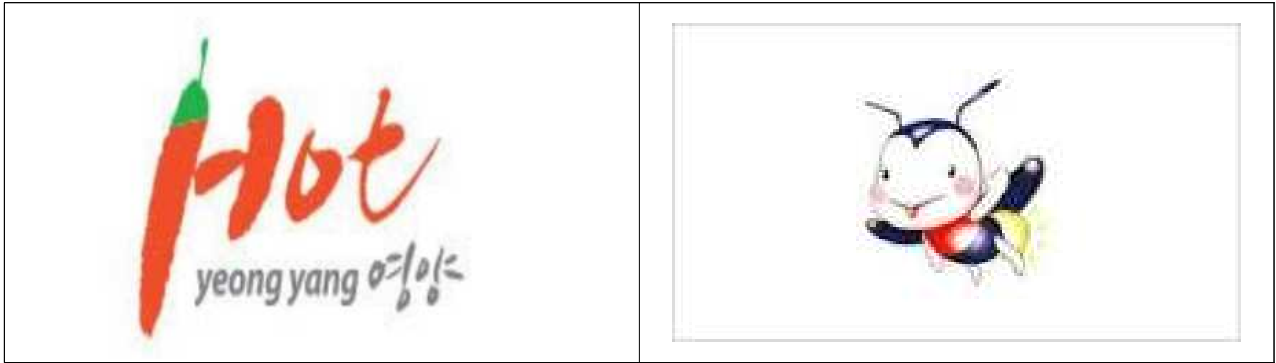


표 12. 영양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영양군청 홈페이지)

영양군의 도시 브랜드 ‘HOT 영양’은 영양의 대표 특산물인 영양고추의 매우면서도 달고 강렬한 특성을 표현하였으며 활기찬 도약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는 공직자 및 군민의 열정과 패기를 나타낸다. 영양군의 캐릭터 ‘반딧불이’는 청정 영양의 이미지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으로 디자인되어 자연학습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사용하는 캐릭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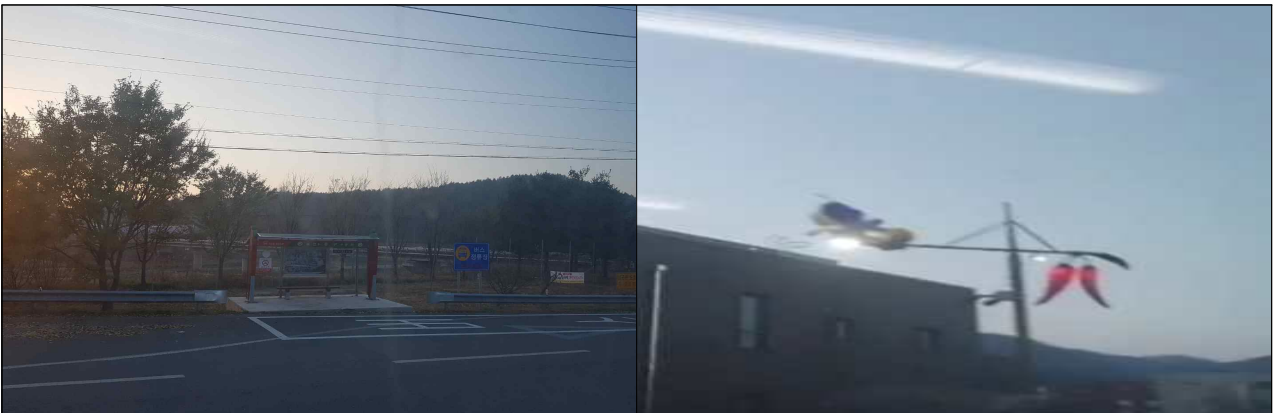


표 13. 영양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사용 사례(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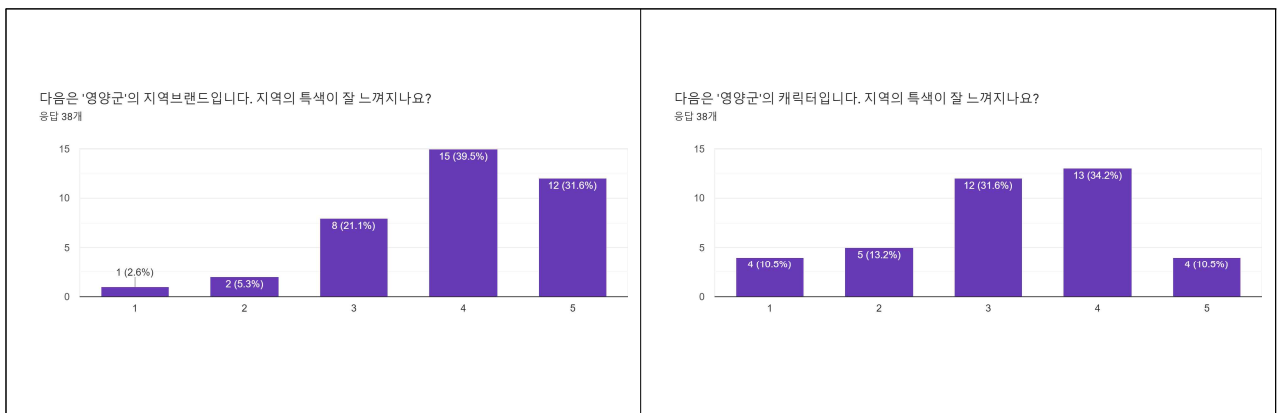


표 14. 영양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영양군’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고추’가 많았으며 영양군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이었고, 영양군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3.2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영양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도시 브랜드는 특산물을 이용해 지역의 특징을 잘 드러냈지만 캐릭터는 심플하고 귀여울뿐 왜 반딧불이를 썼는지 모르겠고 고추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많았다. 본 설문조사는 반딧불이로 실시했지만 실제로 영양군의

캐릭터는 고추를 비롯해 5개의 캐릭터가 있었다. 하지만 그 캐릭터들은 너무 특색이 없었고 다른 지역과 차이 나는 특이점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영양군의 캐릭터는 영양군이 갖고 있는 고추의 고장이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양군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있도록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고추 등을 이용해 한 가지 컨셉으로 일치화할 필요성이 있다.

6. 영덕군

영덕군은 1914년 영덕군과 영해군이 합병되어 형성되었다.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하여 포항시와 울진군, 영양군, 청송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1개의 읍과 8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1년 10월 기준 인구수는 35,497명이며 노인인구비율이 39.1%인 초고령화 사회이다.



표 15. 영덕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영덕군청 홈페이지)

영덕군의 도시 브랜드 ‘블루시티 영덕’은 맑은 바람이 시작되는 영덕의 바다와 차오르는 태양의 기운, 더불어 살아가는 영덕의 마음을 원형으로 형상화하여 영덕의 자연을 상징하는 블루컬러와 그래픽 웨이브를 이용해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영덕의 캐릭터 ‘키니와 토리’는 영덕의 상징인 대게를 의인화하여 영덕대게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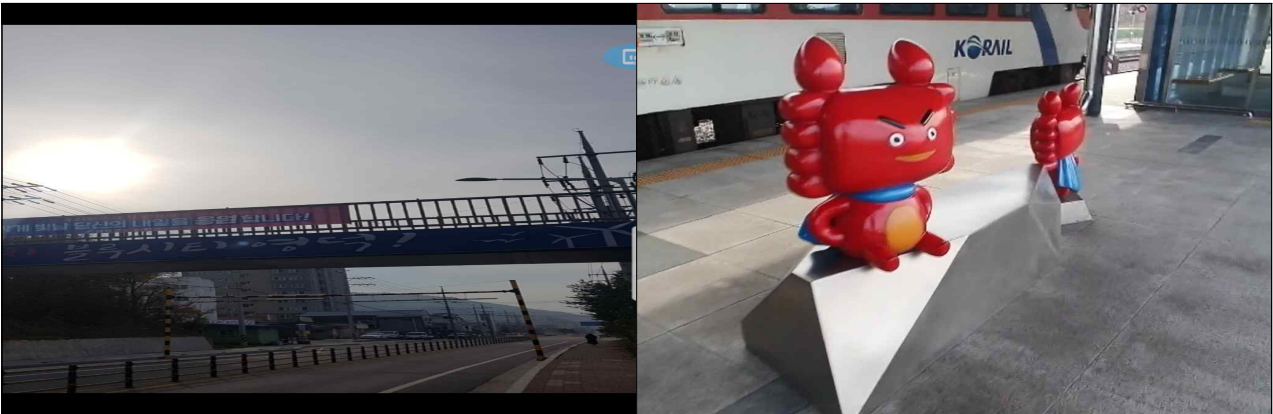


표 16. 영덕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사용 사례(직접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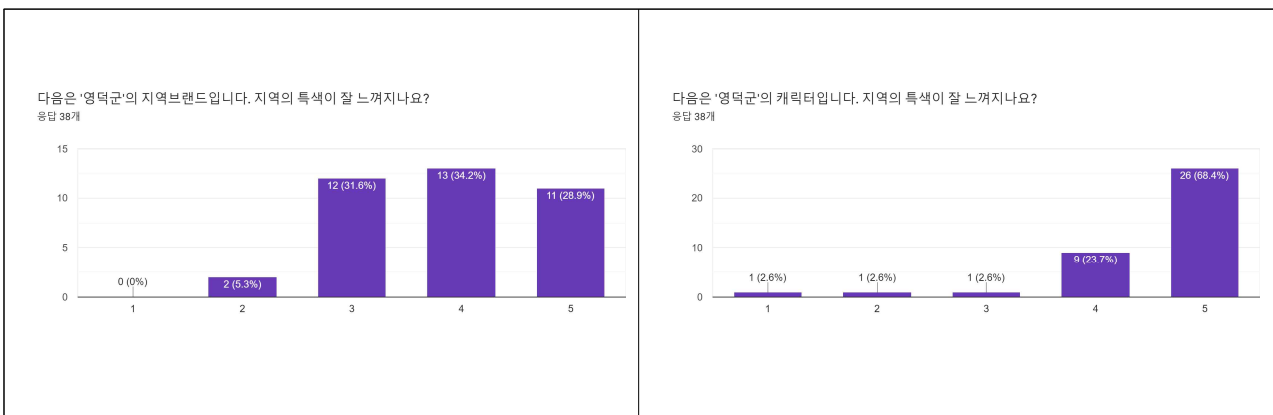


표 17. 영덕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영덕군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대게’, ‘바다’ 등이 많았으며 영덕군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9점이었고, 영덕군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4.5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영덕군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영덕 바다의 푸른색을 이용해 블루시티라고 지은 것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영덕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는 영덕군이 갖

고 있는 바닷가 지역, 대게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잘 맞다고 볼 수 있다.

7. 포항시

포항시는 경상북도의 동쪽에 위치해있으며 2개의 구와 4개의 읍, 10개의 면, 15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수는 2021년 10월 기준 503,179명이다. 청장년층의 비율이 69.4%로 높으며, 노년층의 비율은 18.4%로 연구 지역 중 낮은 편에 속한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에서 인구, 소비 수준, 교육 수준 모두 1위로 경상북도 최대 도시다.



표 18. 포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포항시청 홈페이지)

포항시의 도시 브랜드 ‘powerful pohang’은 이니셜 P를 이용하여 새싹과 하트모양으로 친근감있게 표현함으로써 즐거움과 행복함이 퍼져나가는 포항시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포항시의 캐릭터 ‘연오와 세오’는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포항시의 희망을 담았고 해(연오)와 달(세오)을 상징하며, 포항의 정체성이 담긴 「연오랑 세오녀 설화」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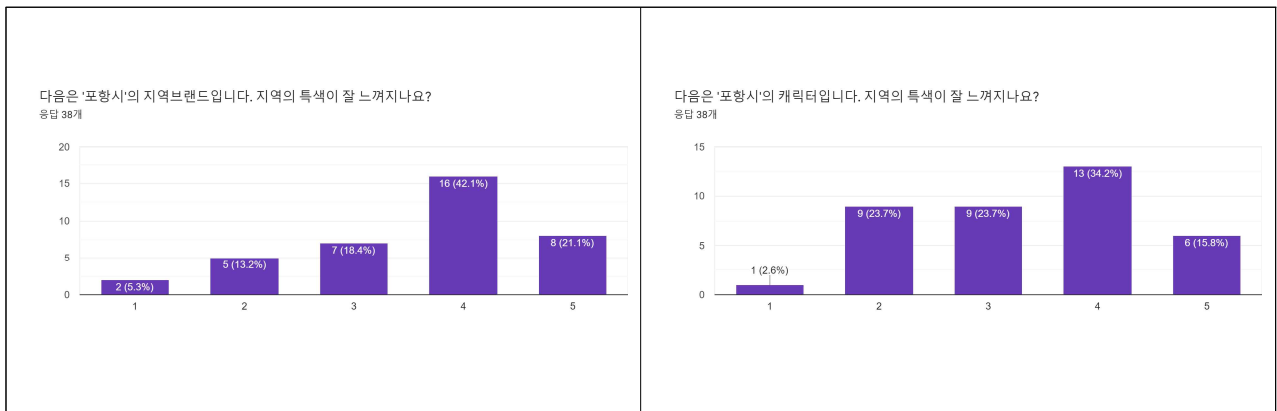


표 19. 포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포항시’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제철’, ‘호미곶’, ‘포스코’ 등이 많았으며 포항시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6점이었고, 포항시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3.4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포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업으로 유명한 포항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도시 브랜드로 잘 표현하였지만 캐릭터가 포항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포항시의 캐릭터는 포항시가 갖고 있는 과메기가 유명한 지역, 제철의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포항시의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도록 과메기, 제철을 이용한 새로운 캐릭터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1981년 직할시(지금의 광역시)로 승격되어 경상북도에서 분리독립하였으며, 7개의 구, 1개의 군, 6개의 읍, 3개의 면, 132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수는 2021년 10월 기준 2,390,721명으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한민국 4위이다. 대구광역시는 대경권을 대표하는 대도시이자 대구권의 중심지이다.



표 20.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



그림 42.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 사용 사례(직접 촬영)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인 ‘Colorful DAEGU’는 도시의 다양성, 포용, 활력, 열정, 발전적 에너지를 의미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젊은 도시, 열린 도시, 열정의 도시」를 표현한다. 대구광역시의 캐릭터 ‘패션이’는 한국의 전통적인 비천상(飛天像) 문양의 미적 감각을 21세기 세계적 섬유 패션 도시로의 이미지와 조화되게 형상화한 것으로서 섬유 패션 도시를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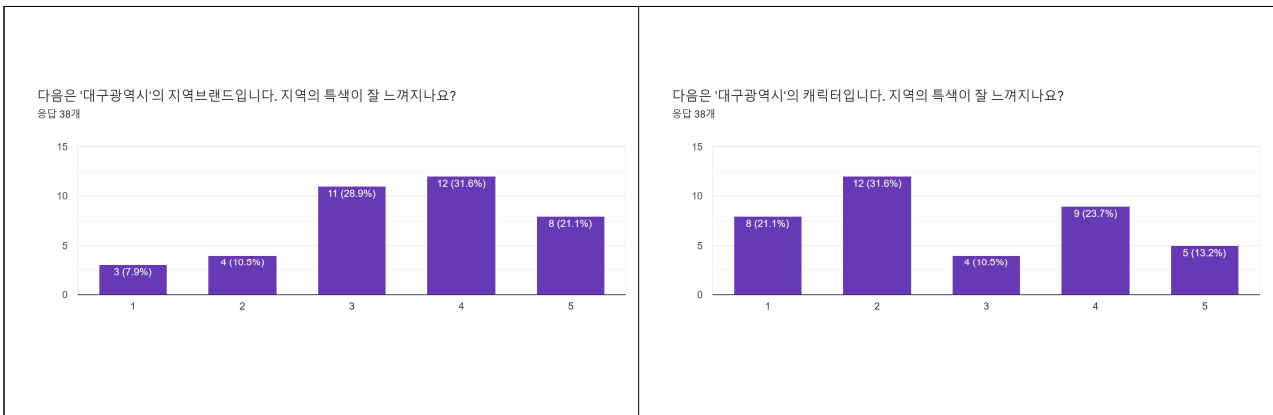


표 21.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관한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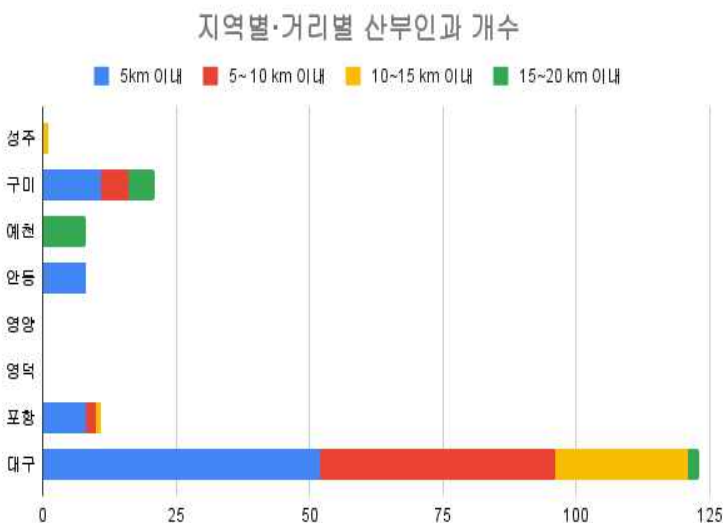
‘대구광역시’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동성로’, ‘섬유’, ‘사과’ 등이 많았으며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가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는 5점 만점 중 평균 3.5점이었고, 대구시의 캐릭터 적합성은 평균 2.8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에 대한 의견으로는 ‘섬유의 다채로운 색을 나타내기 위한 colorful이라는 단어가 대구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캐릭터는 무엇을 표현하는지 모르겠다.’ 등이 있었다. 물론 도시 브랜드에

대한 의견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대구광역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었다.

즉 대구광역시의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는 대구광역시가 갖고 있는 섬유의 도시, 패션의 도시라는 이미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잘 살려 낼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패션의 중심 대구의 특성을 살린 도시 브랜드 및 캐릭터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IV. 각 지역별 중심지 기능 비교

1. 산부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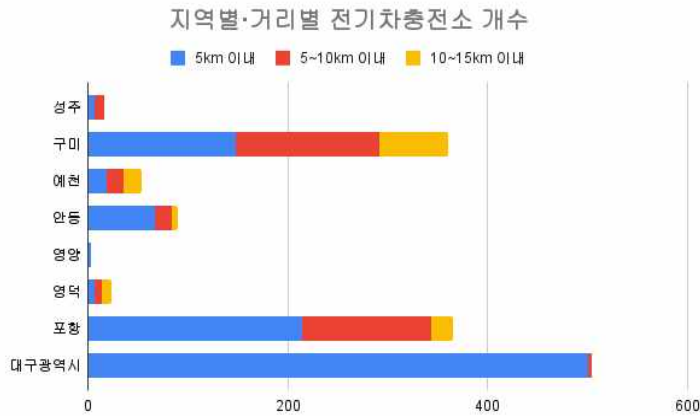


영양군, 영덕군은 중심지로부터 20km 이내에 산부인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성주군, 예천군은 중심지로부터 10km 넘게 떨어진 곳에 산부인과가 존재하였다. 반면, 구미시, 안동시, 포항시, 대구광역시는 중심지로부터 5km 이내에 산부인과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5km~ 20km 떨어진 곳에도 산부인과가 여럿 존재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점은 ‘시’ 지역, 즉 대도시일수록 산부인과라는 편의시설이 많았고 ‘군’ 지역인 농촌 지역은 산부인과라는 편의시설의 부족 현상이 나타

났다. 이런 편의시설의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농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 도시로 사람이 몰리게 될 것으로 그로 인해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전기차 충전소

표에서 나타나듯, 농촌 지역인 성주군, 영양군, 영덕군은 도시 지역인 구미시, 안동시, 포항시, 대구광역시보다 전기차 충전소의 개수가 부족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다만, 같은 농촌 지역인 예천군은 도시 지역인 안동시와 비슷한 전기차 충전소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도청 신도시 신설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안동시와 예천군 사이로 도청이 이전하며 도청신도시가 생기고 이것



주위에 여러 편의시설이 생겼다. 이를 통해 예천군은 다른 농촌 지역과 달리 편의시설 중 하나인 전기차 충전소가 도시 지역만큼 많이 분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선 산부인과의 분포처럼 전기차 충전소 역시 발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3. 교육기관

학교급별 학교 수는 대체로 인구수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

지역명	총인구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구광역시	2,390,721	230	124	93	13
포항시	503,179	66	36	27	4
구미시	413,366	52	28	21	4
안동시	157,317	34	8	4	1
예천군	55,809	12	9	3	1
성주군	42,781	12(2)	7(1)	3	0
영덕군	35,497	9(2)	8	4	0
영양군	16,330	6(1)	4	3	0

표 22. 학교급별 학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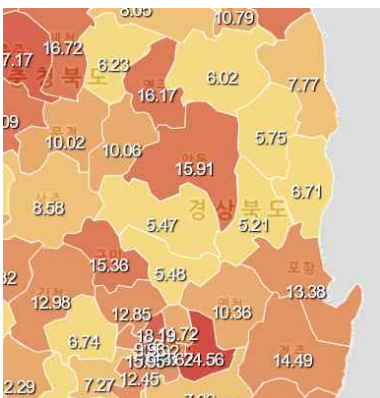


그림 48. 교원 1인당 학생 수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초·중학교나 중·고교 등 다른 학교급 2개 이상을 통합해 운영하는 학교가 농어촌 지역 뿐만 아니라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경북에는 현재 16개 교가 운영 중이며 대구광역시에 첫 통합학교인 대구팔공초중학교가 올해 개교하였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다면 앞으로도 학교 간 통폐합은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학교 위치 선정과 통학버스 운영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대구 14.86명, 경북은 14.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5.91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수가 3배 가량 차이 나는 예천, 성주에 비해 중·고교의 수는 거의 차이가 없어 인구 수, 면적 대비 학교와 교원의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 의료기관

지역별 의료기관의 수 역시 인구 수에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안동시의 경우 지역 규모에 비해 종합병원과 병원의 개수가 많아 응급의료시설 접근 취약인구의 비율이 연구 지역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안동시가 경북 북부 생활권의 중심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지역명	종합병원	병원	의원	요양병원	한의원
대구광역시	16	109	1842	57	869
포항시	5	14	278	29	127
구미시	3	7	220	9	88
안동시	3	5	80	7	42
예천군	0	1	21	2	11
성주군	0	2	17	5	11
영덕군	0	1	17	2	8
영양군	0	1	1	1	2

표 23. 의료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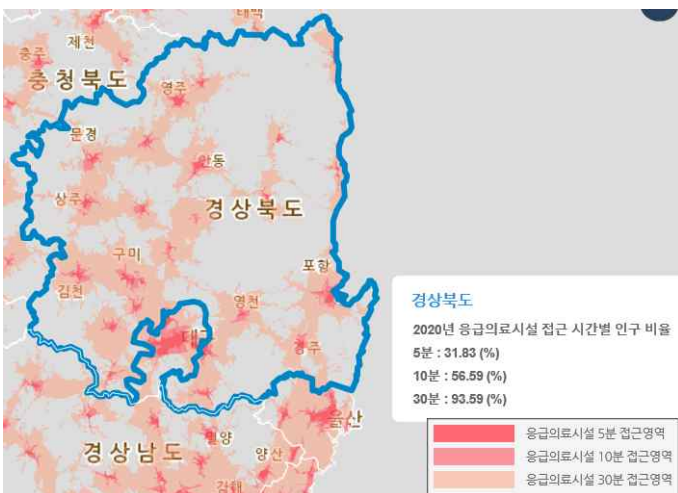


그림 49. 응급의료시설 접근 시간별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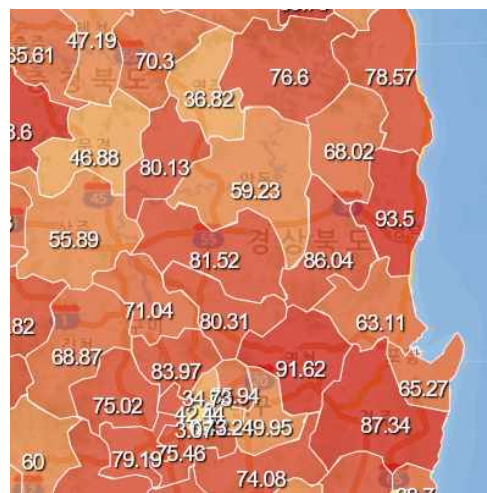


그림 50. 응급의료시설 접근 취약인구 비율(5분)

5. 상업 시설

지역별 상업 시설의 개수는 인구 수와 비례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이할 점은 구미시의 편의점 개수인데, 이는 구미시의 1인 가구의 수가 사례 지역 중 가장 많고 2000년 대비 증가율도 가장 높은 것과 연관성이 보인다. 구미시는 IT, 전자기기 생산업의 발달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것과 관련 있다.

지역명	백화점/ 중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커피전문점 수	커피전문점 증감률
대구광역시	34	677	1614	3,707	37.4
포항시	7	176	394	853	61.9
구미시	5	142	413	513	51.8
안동시	3	36	110	193	39.9
예천군	0	17	25	28	154.5
성주군	0	15	23	37	23.3
영덕군	0	13	33	40	135.3
영양군	0	4	2	7	75

표 24. 지역별 주요 상업 시설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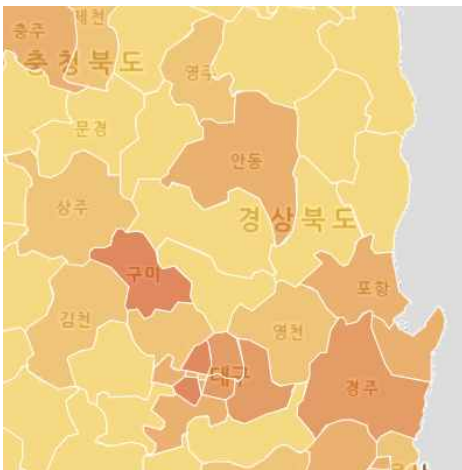


그림 52. 2000년 대비 2020년
1인가구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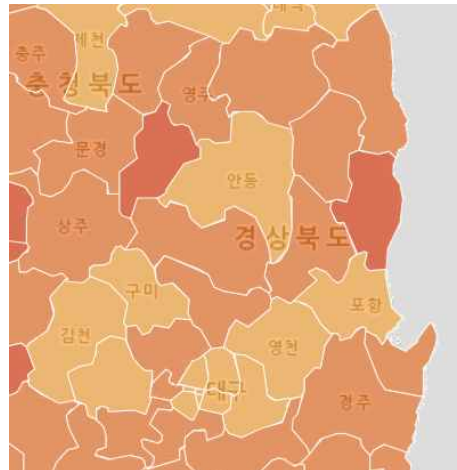


그림 51. 커피전문점
증감률(2016년-2019년)

지역별 커피전문점의 개수와 증감률은 특이점이 보이는데, 영덕군의 커피전문점 개수가 많은 것은 해안 지역으로서 관광객의 유입이 많기 때문이며, 증감률 역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커피전문점 증감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예천군인데 이는 2016년 경북 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청장년층 인구 유입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교통

지역명	운행횟수
대구광역시	50
포항시	8
구미시	13
안동시	18
예천군	9
영덕군	6
성주군	2
영양군	2

표 25. 서울로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토요일 기준)

서울로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는 인구수와는 크게 연관을 보이지 않는다. 포항의 경우 2015년부터 KTX의 운행이 시작됨으로 인해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우 도청 신도시 건설로 인한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해 시외버스 운행 횟수가 많은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V. 결론

연구 결과 대구·경북 지역은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정주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 권역, 구미를 중심으로 한 서부 권역,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 권역으로 구분된다. 포항과 구미는 공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뚜렷이 하고 있으며 안동의 경우 뚜렷한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음에도 전통적인 지역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

예천군은 안동시와 함께 도청 이전으로 인한 신도시로서 인구와 주거·상업시설의 유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나 앞으로 이들이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주 여건과 산업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은 대구 근교 농촌으로 시설농업을 통한 1인당 GRDP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재정자립도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었으며, 영덕군과 영양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지역화 전략 중 하나인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개성이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호응도가 높았던 성주군의 ‘참별이’와 영덕군의 ‘키니와 토니’는 한 눈에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잘 드러나거나 현대적인 느낌을 주었다면, 구미시의 ‘토미’는 구미시민 외에는 뜻을 파악할 수 없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대구광역시의 ‘패션이’는 디자인이 촌스럽고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호응도가 낮았다.

SNS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취향과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브랜드 재창조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데, 지역인들만 알 수 있는 개념이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디자인보다는 모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직관적인 브랜드 네이밍과 캐릭터 디자인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용훈(2021), 성주군이웃사촌복지센터의 복지공동체 지원 사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109-116
- 강인호·이영철(2015), 도시 수축: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4-34
- 부산연구원 편집부(2007), 유교문화의 도시 「안동시」, 낙동강연구, 38-41
- 이영아(2021), 현장 중심적 농촌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0-246
- 부산연구원 편집부(2011), 문향의 고장, 영양군, 낙동강연구, 32-33
- 학령인구 감소에...통합 ‘초·중학교’ 대도시로 확산, 문화일보.